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이 미 숙(가톨릭대 교수) · 민 하 영(가톨릭대 부교수)

사회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되는 중학교 1학년의 또래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래애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긍정적일 때 보다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하다하더라도 또래애착에서 보다 긍정적이며 안정적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자아탄력성처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나 반응을 감소시키는 내적 능력이 초기 청소년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 초기 청소년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은 유의한가? 2)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영향은 유의한가? 3)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가?의 연구문제 해결을 통해 개인 내적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도 친구와 보다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절하거나 완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1차년도 데이터 중 2010년 수집된 중학교 1학년 2346명의 자료(남아 1171명(49.9%), 여아 1175명(50.1%))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순 및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낮아지는 것은 Bowlby(1973)의 내적 작동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감소나 억제가 요구된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애착이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같이 개인내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부적 영향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것은 청소년 자신의 자아탄력성이 또래애착 발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